훼손 심각한 용눈이오름 정상부 복구한다

제주시, 3200㎡에 녹화마대 쌓아 보행매트 설치
정상까지 모노레일로 운반… 연말까지 정비 완료

빼어난 조망권에 접근성도 좋아 하루 2000명 안팎의 탐방객이 몰리면서 훼손이 심각한 제주시 구좌읍 용눈이오름 정상부에 대한 복구작업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탐방객들의 답압(밟기)으로 원형이 사라질만큼 훼손된 용눈이오름 정상부 3200㎡에 500t 분량의 식생매트로 복토 후 보행매트(야자매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올 초부터 용눈이오름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본보 4월 13일 5면**)에 따라 전문가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꾸린 오름보호관리자문단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답압을 견딜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정비대책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정상부에 500t 분량의 녹화마대를 15㎝ 두께로 쌓아 복토 후 야자매트를 깔아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긴급정비키로 결정했다. 정비에는 2억1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500t 분량의 녹화마대 운반을 위해 8월 24일 오름에 모노레일 설치도 마쳤다. 바퀴가 달린 장비를 사용한 운반이나 헬기 이용도 검토했지만 탐방로 훼손 우려와 상당한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해 탐방로 이외 구역에 모노레일을 설치해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해발 247.8m의 용눈이오름은 빼어난 오름 능선과 성산일출봉과 섬 우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오름 중 한 곳으로 유명하다. 그 결과 답압을 견디지 못해 정상부를 중심으로 송이층이 드러날만큼 훼손이 가속화되며 식생까지 파괴돼 보전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탐방로에는 다른 오름보다는 짧은 2~3년 주기로 야자매트를 교체해 왔지만 몰려드는 탐방객 발길에 임시대책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7월 서귀포시 표선면 백약이오름에 대해 2년간 출입을 제한하는 자연휴식년제 시행을 밝히면서 용눈이오름과 애월읍 새별오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오름 보전·이용 시설 설치효과 등을 검토한 후 자연휴식년제 시행 여부를 오는 연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생매트를 운반할 모노레일은 탐방로와는 다른 구간에 설치돼 있어 공사기간 탐방객 통제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다만 현수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공사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태풍 '마이삭' 북상… "농작물 관리 철저"

농기원, 농작물 관리요령 발표
병해 예방 약제 살포 등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농작물 관리요령을 발표했다.

31일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하우스 및 시설물 고정 보완·점검 ▷전기시설 점검 및 비상발전기 시운전 ▷노지감귤 가지 부러짐 방지 지주 세워 묶어주기 ▷타이벡 피복 속 빗물 유입 차단 ▷배수로 재정비 ▷병해 예방 약제 살포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시설하우스 내부에 물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물을 빼주고, 물이 빠졌더라도 병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환풍기 등을 이용해 건조한 후 적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노지감귤의 경우 부러진 가지는 잘라내고, 자른 면에 도포제를 발라줘야 한다.

누적 강우량이 200㎜ 이상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검은점무늬병 약제를, 침수된 과원은 역병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적용약제를 각각 살포해야 한다.

토양피복과원은 피복물 속으로 빗물이 과다하게 유입됐을 때에는 반드시 토양피복제를 걷어내 토양 건조 후 재피복해야 한다.

감자, 당근, 양배추 등 밭작물 및 월동채소류는 강한 바람에 의한 뿌리 돌림증상과 잎과 줄기에 상처를 입어 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와 수세 회복을 위해 요소 또는 4종 복비로 엽면시비해 주면 좋다.

바닷바람의 피해를 받으면 강한 바람이 약해지는 즉시 10a당 물 2000~3000ℓ를 잎에 뿌려 염분을 제거해야 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항 항만근로자센터 신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항 항만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제주항 항만 배후부지에 위치한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건물은 준공 후 25년이 지나 노후 상태로 매년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항만근로자를 위한 건물 1동, 4층 규모의 복지센터를 신축하고,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 후 해양수산 관련 업체를 모집해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임대 등)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 관련 주요 단체를 일정 구역 안에 집적화하는 해양수산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마늘 심는 농민들 31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마늘 파종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전복·홍해삼·돌돔 등 방류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 자원 조성과 해녀·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전복·홍해삼·돌돔 등 수산종자 5개 품종을 대량 방류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27억원을 투입, 상·하반기로 나눠 모두 80개 마을어장과 연안어장을 대상으로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8~12월 도내 어촌계 51곳을 대상으로 전복 20만 마리, 홍해삼 76만 마리, 오분자기 6만 마리, 어류 144만 마리(돌돔·쏨뱅이 각 72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의료계 집단휴진 중단하고 현장 복귀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의료계를 향해 집단휴진 중단과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31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 집단휴진과 그로 인한 진료 거부·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복지안전위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제주도민들의 '코로나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이 감지되고 있는 위중한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 합심하여 협력하는 것"이라면서 "안전한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안전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에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 책임 아래 경쟁력 있는 지역공공의료 기관이 확충되어야 하며, 제주의 경우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인 만큼 공공보건 의료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공백 가능성에 대비해 적절한 진료 대응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평택항 제주물류센터 재매각… 성사 '불투명'

코로나19 장기화 걸림돌
입찰자 없어 11일까지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첫 입찰에서 유찰된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재매각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 매각의 걸림돌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31일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입찰을 재공고했다. 앞서 지난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첫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건물에 대한 전국 일반경쟁 매각 입찰공고'에서는 입찰자가 한명도 없어 유찰됐다.

이번 재공고의 입찰기간은 오는 11일까지며, 14일 개찰된다.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수수료를 포함해 17억4700여만원이다.

한편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는 지난 2013년 제주농수축산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수도권 거점 물류센터 용도로 48억3000만원(국비보조 50%)을 투입해 건립됐다. 하지만 수년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개점휴업상태를 이어오면서 '애물단지, 혈세낭비' 지적을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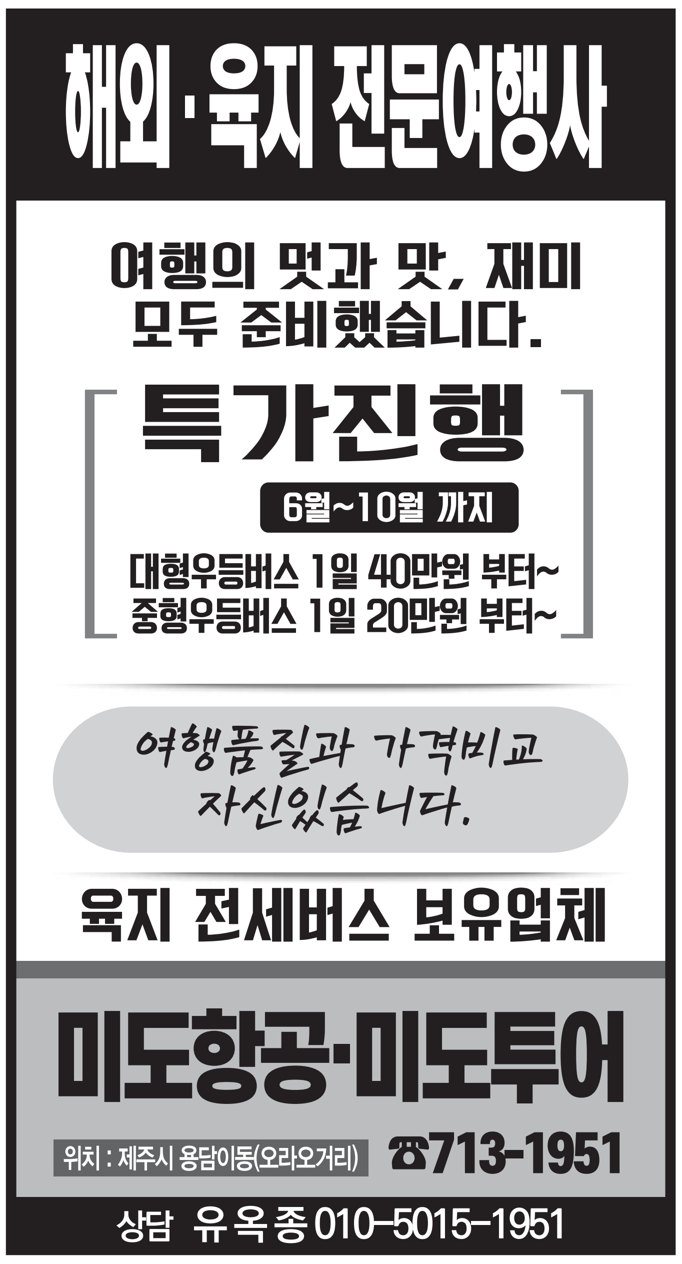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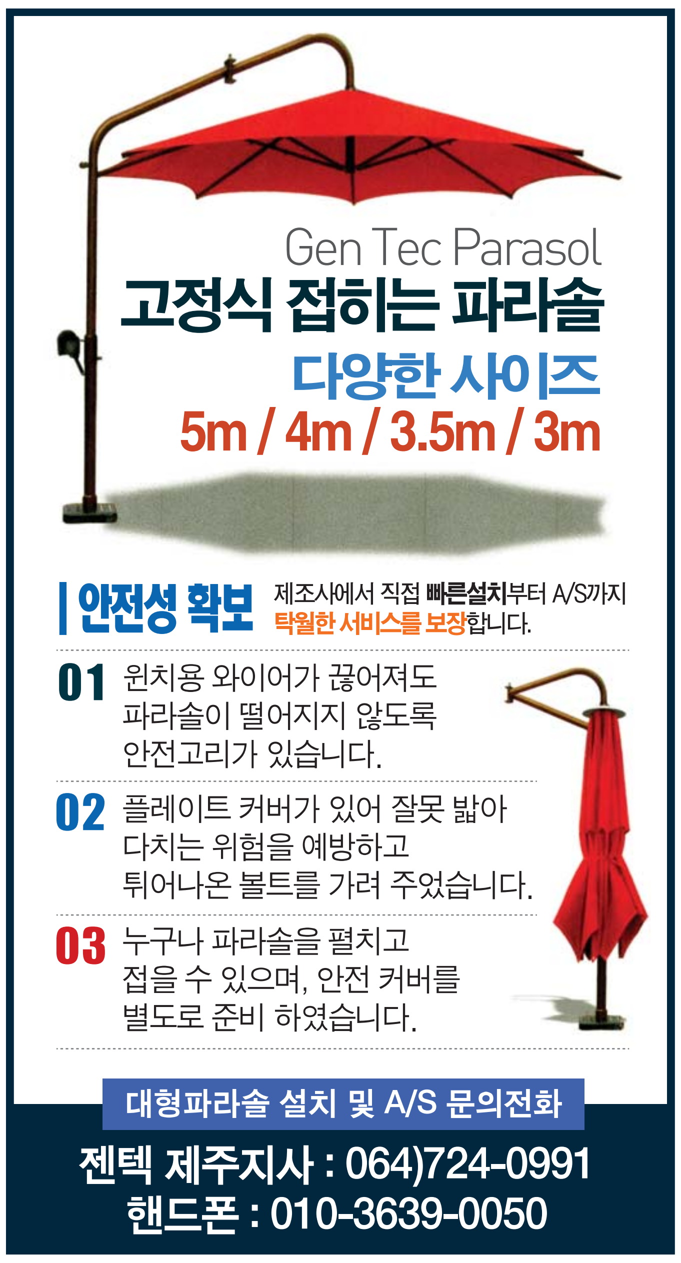
제주도는 지난해 운영사업자 선정에 공을 들였지만 결국 새 운영자를 찾지 못하면서 부지사용 임차료 유지비용 부담에 따른 도 재정 손실 최소화를 위해 센터 매각을 선택했다.

현재 부지 사용 임차료 유지비용 약 3억원을 도가 부담하고 있어 올해 안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할 경우 재정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은지기자

해녀박물관에 '해녀의 숲' 조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박물관 부지 내 유휴지를 정비해 '해녀의 숲'을 조성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녀의 숲'이 조성되는 곳은 해녀박물관 부지 내에 있는 속칭 '연두망동산' 일대로, 제주올레 21코스와 해녀 숨비소리길의 시작과 종착점과 연접해 있다.

도는 산책로·정자·벤치·조형물 등 시설을 설치하고 화초 등을 식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 '해녀의 숲'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관람객의 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해녀박물관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5000만원을 투입해 박물관 야외광장 주변에 하귤나무, 백일홍, 감나무, 수국 등을 식재했다. 오은지기자